



2016년 03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5·18 기념재단과 협약체결 및 공동사업 진행

: 지난 3월 7일에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께서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 안내와 사업 소개를 진행 하였습니다. 소개가 끝난 뒤, 상호 협약체결을 통해 교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자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연구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한국고전학연구소와 전주대학교 K-History 특성화 사업단이 공동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4월 9~10일 양일간 오월길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행사 사업비는 5·18 기념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다짐합니다.



○ 2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날 짜 : 2016.03.11.(金) 오후 6시
- 장 소 : 단비 심리상담센터(이미경 운영위원 사무실)
- 안 건 : 오월길 답사 관련의 건 / 해외역사탐방 관련의 건
- 내 용 : 연구원 2차 운영위원회의가 지난 3월 1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미경 운영위원이 개소한 <단비 심리상담센터>에서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의는 5·18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오월길 답사에 대한 승인과 해외역사탐방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회의 후 문명철 이사님께서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운영위원을 격려해주셨습니다.



○ 연구원 소모임 "호연지기" 모임

: 2016년도 연구원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소모임 지원사업의 3번째 소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호연지기"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호연지기를 기르자는 취지로 결성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경남 남해에서 진행되었으며, 변주승 상임이사, 광주의 유선종, 차상현 회원, 정읍의 박종수 회원, 전주의 고정수 회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2016년도 연구원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임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소모임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모임을 직접 만들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일시	내용	비고
4월 19일	잘 돼 갑니다 / 효자동 이발사	
5월 18일	꽃잎	
6월 25일	태백산맥	
7월 中	답사(추후 계획공지)	
8월 15일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신들러 리스트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일시	내용	비고
3월 26일	아리랑과 명량산(해발 51m / 김제시 죽산면)	
4월 13일	화암사와 불명산(해발 480m / 완주군 경천면)	
5월 21일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8월 20일	봉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9월 24일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10월 22일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11월 19일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12월 17일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실시

: 연구원 기획사업으로 “해외역사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日)~7월 1일(金)에 5박 6일간 예정되어 있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일원 답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예상경비가 확정 되는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회원 소식

○ 박해성 회원 장녀 혼인

: 박해성 회원의 장녀 박현정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 03. 19(토)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신도림 웨스턴베니비스 7층 다이너스티홀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7층)

○ 정호선회원 부산의제 환경교육위원장 위촉

: 부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호선 회원이 부산시로부터 부산의제 환경교육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부산지역에 생태학적 지식의 대중화와 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정호선 회원의 진가에 대한 작은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환경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큰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3월 14일(月) : 주간회의
- 03월 14일(月) ~ 18일(金) : 연구원 자료실 도서 분류

■ 옛 詩와의 만남

春望詞

봄날의 그리움

風花日將老 바람결에 꽃잎은 나날이 시들고
佳期猶渺渺 아름다운 기약은 아직도 아득한데,
不結同心人 마음을 함께 맺지 못하는 사람은
空結同心草 한갓되이 동심결로 풀잎을 맺고 있네.

■ 작자소개

- 설도(薛濤; 770~832). 당나라의 여류시인. 기생이었으나, 나중에 평민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주옥같은 시들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녀가 만든 종이였던 '설도전(薛濤箋)'은 당시에 호사가들이 다투어 사들일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연하의 시인이었던 원진(元鎮)과 나누었던 로맨스는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린다.

아래는 김성태가 작곡한 「동심초(同心草)」의 가사 1절이다. 이는 김소월의 스승 안서(岸曙) 김억(金億; 서기 1896~?)이 당나라의 여류시인이었던 설도(薛濤)가 지은 위의 시를 노랫말에 어울릴 수 있도록 번안한 것이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은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 감 상

그런데 이 노래의 제목인 '동심초'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다. 한시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조어(造語)로, 동심초는 풀이름이 아니다. 풀로 엮은 동심결(同心結)이니, 여기서는 일종의 애정의 증표이다.